

무엇보다도 강제수용소의 해방을 간절히 바란다

—김정일 사망에 따른 NO FENCE 성명—

김정일이 사망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그 근간인 강제 수용소의 폐절을 요구해 온 NO FENCE(북한의 강제수용소를 없애는 액션의 모임)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북한의 민주화 및 인권의 회복은, 강제 수용소의 폐절로부터 시작된다.

강제수용소는 북한인민의 공포의 대상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체제에 반대하거나 비방하면, 재판도 없이 가족 전원을 수용해 강제노동의 끝에 죽음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전국의 산 중에 수십 곳이나 있다고 알려지는 강제수용소가 없어지면, 북한사람들은 용기를 갖고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제수용소 폐절로부터의 착수는 어렵지만은 않다.

(1) 북한은 국제인권 규약 <자유권 규약>의 가입국이며, (2) 유엔은 최근 몇 년간 강제수용소를 포함한 인권 개선의 총회 결의를 북한에 대해 행해 왔으며 (3) 세계의 주요 인권 NGO 도 강제 수용소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인도 범죄를 저지하는 국제적인 연합(ICNKR)을 올해 9월 8일에 결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상기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반대해,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장애가 있었지만, 김정일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싶다면, 그것을 가로막아 온 강제수용소의 폐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계속해서 옹호한다면, 중국은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동시에 위험성도 있다.

김정일의 죽음은 강제수용소 폐절에 있어서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유사시에는 20 만명 이상의 수용자가 증거 인멸을 위해 학살될 우려가 있고(수용소 체험자의 증언), 일반 시민으로 유사 시에 말살되는 대상자가 <10 호대상>으로 사전에 리스트업돼 있다는 정보도 있다.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강제수용소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김정일의 죽음을 계기로, 강제 수용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것을 기대한다.

2011년 12월 19일

NO FENCE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없애는 액션의 모임